

UHC Asian Community

From:
Sent: Monday, March 25, 2024 12:34 PM
To: UHC Asian Community
Subject: 나와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이야기

Categories: External Email

Caution: External email. Do not open attachments or click on links if you do not recognize the sender.

나는 68세된 은퇴자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와 생활한지는 벌써 20년으로 달려갑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인생을 위해 타주에서 혹은 타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나이티드의 한국어 상담사에게 고마운일이 있어 이런기회에 글을 올리게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은 늙은나이는 아닌데 백내장수술을 받게 되었고 병원측으로부터 본인부담금이

청구되었으며 본인은 메디케어,메디케이드가 되는데 왜 본인부담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하여 귀사에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어 상담사는 정말로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면서 해당 병원의 Billing Part에 전화를 하여 영어통역을 하여주고 문제를 잘 해결해주었습니다.

어찌보면 하지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정말로

가족의 일을 하여주는것같이 진심으로 하여

주는것을보고 매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친절함이 몸에 베어있어서

항상 전화상담할때 기분이 좋아지게되고,특히 그날에 상담하여 주신분은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훌륭한 직원들과 함께하는 귀사는 늘 무궁발전 할것으로 기대합니다.

직원 모두들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